

회의록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차 분과위원장 회의]

- 일시/장소 : 2022. 10. 12.(수) 14:00~15:10 / 예산담당관실
- 참 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9명
 - 김주익(기획재정), 오병욱(소통행정), 조규호(시민안전), 엄양순(건강복지), 이배원(문화체육관광), 이규택(환경), 송용섭(도시녹지), 임종엽(해양항공), 장선자(IFEZ)
- 배 석 : (시) 참여예산팀장 외 담당공무원 3명
(지원센터) 팀장 1명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인천시 참여예산팀장님의 회의안건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9. 27. ~ 10. 7.까지 총 94건 237억5천3백만원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음 ○ 분과별로 살펴보면 참여형 12개 분과 61건 117억6천1백만원, 참여형 제안사업 중 일반예산 편성 검토사업 10건 65억6천4백만원, 협치형 6개 의제 23건 54억2천 8백만원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음 ○ 투표방식은 참여형은 안건 개수에 따라 1~3개 투표하시도록 안내드렸고, 협치형은 23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투표하시도록 안내드렸음 ○ 투표결과는 총 5,264명이 접속하셨고 그중에 4,3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음. 투표결과는 총회 진행 하면서 12개 분과 우선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음. ○ 당초 안내드린 대로 10. 14. 16:00~17:00 약 1시간동안 시 공감회의실에서 시장님, 12개 분과 위원장님,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민간협력과장 등 16분 정도 총회에 참석합니다. 방법은 줌하고 온라인도 병행해서 하고요, 진행 순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음. ○ 그리고 이제 오늘 회의가 종료되면 지금 기획사에서 와서 대기하시고 계신데 당일날 현장에서 송출할 인터뷰 영상을 사전 녹화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오늘자 인천일보 주민참여예산 171억 불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 장씩 드렸는데 ○ 171억이라는 것은 참여형 61건 117억 원하고 협치형 23건 54억을 말하는 것임. 기사에는 참여형 제안 사업 중 일반 예산 편성 검토 10건 65억 원 제외된 기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음. ○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진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달이 덜 되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 좋은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족한

위 원	발 언 내 용
	부분을 채우고 잘 되고 있던 부분을 발전시켜서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인천일보에서 171억이라는 것을 기사를 낼 정도 되면 이 기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낼 리는 만무함. 분명히 뭔가가 소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나온 결론일 텐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금액에서 더 이상 증액되거나 아니면 뭐 변동된 사항 그런 소견은 없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님
임종엽 분과위원장	○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터무니 없이 171억을 보도해서 지탄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아마 인터뷰는 우리 직원과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171억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여형 61건 117억 원하고 협치형 23건 54억을 더하면 171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옴. 이것은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공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보도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그럼 보도한 기자가 전체의 것을 본 게 아니라 한쪽만 듣고서 지금 기사를 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인천 지방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다면 인천시에서도 어떤 대응이 있을 것 아닌지.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한 기자의 시각이지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다른 것이라는 기사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기자 이메일도 다 있으므로 이분한테 수많은 질문이 들어갈 텐데 이분도 이런 당혹감을 느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함. ○ 따라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대다수 사람들은 내년에는 예산이 500억에서 171억으로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인천시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든지 해야지 그냥 두면 이 것 하나만 보면 내년도 우리 참여 예산은 171억에 불과하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임.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고 기사에도 나왔고 저도 말씀을 드렸음. ○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지금 이제 마지막 계수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주민참여예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의회 넘어가기 전에 아마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께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하게 됨. 그때 되면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겁니다. ○ 이 기사도 어떻게 보면 틀린 기사는 아님. 세 가지 유형 중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위 원	발 언 내 용
임종엽 분과위원장	○ 혹시 시정혁신단에서 기자가 소스를 받아서 지난번처럼 기사가 나온 것은 아닌지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은 시장님 최종 결제 받기 전까지 우리가 토달로 오픈하는 경우는 없음. ○ 예산실 직원들만 알고 있으며, 기사에 보도된 금액은 투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수치임. ○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분야별 예산 규모나 내용별 예산 규모는 계수작업 하는 직원과 그 라인밖에 알 수 없음. ○ 저도 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컨트롤하고 핸들링 하고 있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왜 그러냐면 오늘 일자에 일면 톱기사로 낸 것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헤드라인인데 이것을 너무 이분이 가볍게 한 거에 대해서 시정혁신단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본데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혁신단은 이 수치를 알 수 없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음. 이것을 기사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참여예산 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전혀 없고 우리들의 의견은 없이 이렇게 가볍게 올렸다는 것은 이 기자가 무슨 의미에서 올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움.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제가 기자와 통화를 한 번 하겠음.
김주익 총위원장	○ 다른 분과장님도 혹시 이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지
[위원들]	○ 없음.
김주익 총위원장	○ 저는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2024년도부터는 주민 참여 예산의 금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참여형은 250억 협치형은 240억 해서 500억 규모인데 이게 목표치가 아니라 이제 24년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한도치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셨음. ○ 시 예산 규모의 0.02% 규모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규모상 보면 그러함.
김주익 총위원장	○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8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구성 되면 그 부분을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임. 물론 여기에 3연임을 하시는 분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연임이나 신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내용들 일단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음. ○ 시정혁신단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피드백 하는데, 그 결과도 나중에 저희에게 피드백 해 주시는지. ○ 시장님한테 보고된다는 내용은 극비 사항인지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감사 관련은 예산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움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억 총위원장	○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거기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님. 감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귀책 사유는 저희들에게 있고,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이며,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럽지만 ○ 위원님들이 피감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전혀 어불성설임. 그것은 1년, 2년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고생 해오신 것을 피감기관이라고 피감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임.
김주억 총위원장	○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공개가 된다면 위원회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분과장 단톡방 등에 공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아울러 인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가 올해로 위탁 관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참여예산팀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음. ○ 기존 지원센터가 해왔던 일들 중에 교육과 같은 부분들이 상당한 역할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예산 담당관실 참여예산팀의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임. ○ 아울러 지금 하반기에 12개 분과위원회 워크숍이 있음. 주관은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 작년 같은 경우 각 분과별 임원분들이 한번 평가단 회의를 하고 12개 분과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12개 분과에 현재 지금 분과위원들이 167명임. 167명을 다 만나보지 못했음. ○ 지원센터에 상의한 결과 지원센터의 예산으로 하는데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167명이 사실 다 모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7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평가단 회의를 다같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분과장님들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좀 묻고 싶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작년에는 다 안했음.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김홍섭(배석)	○ 작년에 분과별로 진행했음. 임종엽 위원장님은 분과별 회의 후 전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김주억 총위원장	○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못 했던 건 인정하지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올해 11월에 한다고 한다면 대회의실이나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한번 각 분과별로 오실 수 있는 분과 위원들에 한해서 오셔가지고 내년도 제안 사업 61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참여예산팀의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계획 등 초안을 들을 수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함.

위 원	발 언 내 용
	○ 참여예산팀에서 이제 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가정하에 2시간 내외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규택 분과위원장	○ 환경분과는 아주 좋다고 생각함.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너뛰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완화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함
김주억 총위원장	○ (참여예산팀장에게 질의) 혹시 가능한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먼저 센터 관련해서 교육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 ○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진흥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과 협업하고 장소 제공도 요청하여 지원센터 못지않게 준비를 잘 하겠음. 지켜봐 주시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음 ○ 또한 워크숍과 관련하여 시기와 참여대상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하셔서 결정해서 주시면 장소 제공은 우선 고려해서 평일 주말 무관하게 적극 협조하겠음
김주억 총위원장	○ 분과장님들 생각에는 평일 또는 일과 후나 주말 중 어느 때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조율을 해서 지원센터 쪽에 얘기를 해드려야 센터 쪽에서도 필요한 일정이라든지 필요한 집기류를 준비할 수 있음. ○ 참여형 사업 61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공유 하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함.
이규택 분과위원장	○ 2시간 정도 한다 하면 굳이 근무시간 외보다는 주간이 좀 낫지 않을까 함
엄양순 분과위원장	○ 복지건강분과는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 모니터링도 현장을 저 혼자 두군데 세군데 다녔음. 평일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규택 분과위원장	○ 저희도 마찬가지임.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하는 것밖에는 어떤 걸 결정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봄
김주억 총위원장	○ 이규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어떤 사유가 됐든 안 오시게 되고. ○ 그래서 이 하반기 분과위원회 워크숍을 전체 분과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도에 반영되는 우리 61건에 대해 한번 훑어보고 아쉬웠던 점을 토론했으면 함. ○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전체 분과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년 2월 28일 3년임이 끝나시는 분과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시니 이분들이 끝나시는 시점 전에 기존에 계셨던 다른 분과 위원님들과 회동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음 ○ 61건이 크게 와 닿지는 않지만 우리의 결과물이고 물론 14일날 총회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회의는 끝나겠지만 사실 총회가 끝나고

위 원	발 언 내 용
	<p>난 이후 특별히 남아 있는 게 하반기 워크숍과 분과별 모니터링 회의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p> <p>○ 그게 끝나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12개 분과의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게 별로 없음. 겨울방학 비슷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8기가 위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과장님들이 분과 단톡방에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날이 좋은지만 의견을 취합해 주시기 바람. 평일이 좋은지 주말이 좋은지 정도만</p>
임종엽 분과위원장	○ 각 분과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함.
김주익 총위원장	○ 저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회의 장소는 대회의실이 아니어도, 교육원의 큰 강당이나 문화회관 소강당, 송도 TP에 200석 규모의 회의실도 있으니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음
김주익 총위원장	○ 김홍섭 팀장님 센터 일정은 괜찮은지?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김홍섭(배석)	<p>○ 현재 예정된 일정은 없음</p> <p>○ 모니터링 회의는 11월 3주차까지 있음.</p>
김주익 총위원장	○ 그럼 시청의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마지막주에 추진하면 어떨지
엄양순 분과위원장	○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어떤지?
김주익 총위원장	<p>○ 그러면 하반기 분과위원회 워크숍은 11월 30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정도 일단 이렇게 하겠음. 관련된 것은 지원센터와 참여예산팀 협의하여 장소를 확정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분과위원회 단톡방에다 공지를 해서.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멘트를 남기시면 될 것 같음.</p> <p>○ 이왕이면 장소를 잡아주실 때 조금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음.</p>
임종엽 분과위원장	○ 이 평가 워크숍은 정식회의로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오늘처럼 정식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회의 참석 수당 또 심사 수당을 드리는 게 맞는데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참석하시는 분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그렇다면 간식 제공 가능한지. 왜냐하면 공지를 할 때 오시면 준비한 간식과 같이 토의가 가능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 훨씬 더 수월함.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김홍섭(배석)	○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원	발 언 내 용
송용섭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이제 참여예산 위원 올해 이제 3년 차고, 여지껏 지켜본 결과 아쉬움이 좀 있음 ○ 이게 내년도 예산을 8기로 넘겨주는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니까 예산이라는 건 아웃라인이 이미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을 바꿔 보겠다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봄. ○ 이번에도 500억 이상의 제안을 가지고 거기서 150% 에서 130%로 액수를 크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내년에 제안이 많이 들어와도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 또한 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했는데, 많은 뒷받침이 됐음. 참여예산팀이 직영으로 더 잘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좀 미비하지 않겠나 함.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답답함을 조금 해소해 드리겠음 ○ 한도액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월 29일에 와서 8월 경 시장님 보고를 들어간 일이 있음. 그때 시장님께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 ○ 제안된 사업 내용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 하면 100억이면 어떻게 500억이면 어떻게 1천억이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음. ○ 아까 제가 실링 0.02% 말씀드린 것은 혁신단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음. ○ 아직 규모는 확정된 것은 없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규모의 제한 없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 ○ 또한, 저희들도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에 반영이 안 된 가까운 사업들이 있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배원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한 해 경험을 해보니 부서와 우리 위원들의 제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까 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제안자와의 소통도 상당히 어려웠음. ○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함.
오병욱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를 없애는 게 맞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마무리되는 것이며, 그 기능과 역할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것임.
오병욱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를 없애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믿을 수가 없음 ○ 두 번째는 예산 한도액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는 교육도 안 하고 그 기능도 없애버리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500억이든 1천억이든 요구를 한다는 뜻인지 시에 어느 분이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능 없앤다 예산 지금 171억으로 이렇게 돌린다 해놓고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임. 차라리

위 원	발 언 내 용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조례만 있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100% 해소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음. 다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량을 다 집중하겠습니다. ○ 벌써 이렇게 위원장님들 의식이 이만큼 올라와 계신데 저희들이 검은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운영 방법이 바뀔 수는 있지만 더 발전해 나갈 것임
김주익 총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동안 지원센터가 4년 동안 교육도 하고 그 안에서 분과위원회도 하면서 동반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12월 31일자로 없어진다고 하니 마치 졸업하는 입장에서는 모교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아쉬움도 들고, 과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는데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좀 저조해지면 하는. ○ 분과위원회 인원도 200명에서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면 관심도 줄고, 참여자도 줄 것이라고 생각됨.
임종엽 분과위원장	○ 위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먼 데서 오는데 하고 우리 출석 수당이 3만 원으로 인상된 게 올해입니다. 제가 팀장님 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 해양항공 분과의 경우에는 영종도나 용진군에서 오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그것을 올해 개선해서 숙박비도 주고 교통비를 현실화시켰는데 수당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 오전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지원 협의도 있고 협치단도 있지만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권한이 강화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회형이나 협치형과 같은 것들은 심의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다 핸들링을 하게 될 것임. ○ 또 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그러려면 참여예산 위원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야 하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함. 지금은 참여형만 심의를 했는데 협치형도 한다면 그만큼 임무가 더 많음. ○ 수당을 그런 명목 하에 좀 증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함.
장선자 분과위원장	○ 저도 공감함. 이번에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애쓰심. 같이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근데 모니터링을 한 시간이 IFEZ분과 같은 경우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수당이 3만원이었음.

위 원	발 언 내 용
	<p>다른 기관에서 모니터링 같은 경우 수당이 5만원임.</p> <p>○ 오랜 시간동안 중요한 걸 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음. 시간당 3만원도 아닌 하루에 3만원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p>
김주억 총위원장	<p>○ 분과장님들께 여쭙봄. 활동비 지급이 안 되면 분과위원회가 아예 안 이루어질 것 같으신지?</p> <p>○ 제 생각은 이러함. 3년 전에 상설예산학교를 하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활동에 지원을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사실 없었음. 금액에 관계없이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한 번 봐야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음.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단의 수당 지급액이 다르긴 함. 개인적인 생각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생각함.</p>
임종엽 분과위원장	<p>○ 저는 좀 생각이 다름. 선생님들의 경우도 방학기간에 보수없이 연수나 일을 하지 않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열심히 봉사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초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름.</p> <p>○ 저는 이미 3년차지만 앞으로 위원을 해야 할 분들이 더 많은 역할과 봉사로 주민의 숙원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함.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고려해주십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의사항임. 이상임.</p>
이배원 분과위원장	<p>○ 지극히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p>
이규택 분과위원장	<p>○ 5만원이든 3만원이든 합당하게 지급이 된다면 차후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함. 이왕이면 5만원정도 지급된다면 합당하다고 생각함. 적당한 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함.</p>
조규호 분과위원장	<p>○ 예산을 바라보는 시장의 마인드가 어떤지 중요함. 유 시장님 때 주민참여예산이 80억 정도 되었음. 박남춘 시장 때는 150억으로 늘어남. 현재 예산 규모가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듬. 온예산 스터디같은 활동도 하면서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렇게 지원센터를 없애느니 예산학교를 없애느니 한다면 발전이 있을지 생각이 듬.</p> <p>○ 센터의 역할을 시에서 대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봄. 민간지원관에서부터 센터의 필요성은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정도까지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음.</p>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억 총위원장	○ 위탁이 종료된 사안이고 시와 센터 간의 협의사항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신입위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3년 연임하신 분과장님들의 생각은 지원센터가 자리하면서 잘 해왔던 부분을 없어지고 난 후 잘 배울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워크숍을 할 때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음. 임기가 끝나는 2월28일이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이고 지원센터는 12월 31일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음. 그런 부분은 총회 때 제가 시장님께 여쭙보도록 하겠음.
오병욱 분과위원장	○ 없애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하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음. 현장 모니터링 실비 부분은 다른 데 현장활동 예를 들어 물가조사 요원이라든지 실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음.
김주억 총위원장	○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짜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활동 실비가 필요하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더 보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조금 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임.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 다른 분과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림.
임종엽 분과위원장	○ 차후에 하시는 분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의미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임.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고생하신 주민참여예산의 리더 분들인 위원님들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센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동안 해오신 노고에 대한 영예는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가도록 하겠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활동할 사항이 있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총회 끝나고 이제 내년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마 2월 28일까지는 저희들이 자문 조언 또는 회의할 기회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음. ○ 그러니까 지금 논의된 내용 등을 담아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수립해서 일정별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할 때 또 개선된 사항을 시민 사회단체 공청회나 토론회 때 또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임. 어제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참 언론이라든가 평화복지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또

위 원	발 언 내 용
	위원장님들이 겪으시면서 느꼈던 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틀리다 말씀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패널도 참석해 주실 수 있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조언 자문도 해 줄 수 있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 분과 단독방에 공백기간이 좀 있다보니 문의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분과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에 전 주무관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2월 28일까지의 일정을 총회 후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음. 분과위원장님들께서는 14일 15시 50분정도까지 2층 공감회의실로 오시면 되겠음. 길게는 한 시간에서 짧게는 45분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시장님이 현재까지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음.
김주억 총위원장	○ 하반기워크숍 하기전에는 분과위원님들과 마지막 회동이기 때문에 총회 후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인천 참언론연합회가 기자회견 한 것은 시가 따로 입장을 애기한 것이 있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오늘 저도 기자회견할 때에 현장에 있었는데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 신문 하나도 뜯 게 없음. 시장실 정책비서관과 접견하였고 그분들이 기자회견하고 시장님께 전달하는 문안을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거기까지만 보고드립니다.
김주억 총위원장	○ 읽어보면 인천 주민참여예산 농단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음.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참언론과 평화복지가 관점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움. 가치가 개입되어서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주억 총위원장	○ 총회 관련하여 이제 회의 후 인터뷰가 있는 건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인터뷰 진행하시고 위원장님께서서는 진행 시나리오 내용 보시고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됨.
김주억 총위원장	○ 이상으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